정보 TIP

LGT, '오픈존' 월 이용자 110만명 돌파

LG텔레콤은 개방형 무선인터넷 사이트 '오픈존' 이용자 수가 월 11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2006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월 60만명에 불과했던 페이지뷰도 1년여만에 20배 가량 증가해 1천200만 페이지뷰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오픈존'은 휴대전화로 PC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무선인터넷 모델로 네이버, G마켓, 야후, CGV 등의 사업자들과 제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게임 '팡야 시즌4' 정식 서비스

한빛소프트가 ㈜엔트리브소프에서 개발한 캐주얼 골프 게임 '팡야시즌4 : 딜라이트(Delight)'의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팡야시즌4 : 딜라이트는 초보들도 쉽게 즐길 수 있고 게임 플레이 외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한빛소프트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시즌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루시아'와 새로운 코스 '로스트 시웨이(Lost Seaway)'도 공개됐다. 팡야시즌4 : 딜라이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pangy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수스, 50만원대 노트북 국내 상륙

대만 PC업체 아수스의 50만원짜리 미니 노트북이 국내에 상륙했다.

아수스 코리아는 신개념 모바일 인터넷기기인 EeePC를 소비자가격 49만9천원에 한국시장에 내놓았다고 최근 밝혔다.

EeePC는 Easy to Learn(배우기 쉬운), Easy to Work(일하기 편한), Easy to Play(즐기기 좋은)을 기본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17.8㎝(7인치형)의 LCD화면을 탑재해 무게가 0.92㎏에 불과하고 하드디스크 대신 충격에 강한 4GB 용량의 SSD(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를 채택했다.

MS, 5GB 웹하드 무료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5GB 웹하드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5GB는 1천개의 음악파일과 3만개의 문서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MS 온라인서비스 사업부는 무료 온라인 파일 저장 및 공유 서비스인 '윈도우 라이브 스카이 드라이브(http : //skydrive.live.com)'를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에서 동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MS회원들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장치를 챙기거나 혹은 유료로 제공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에 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MS사 윈도우 라이브(www.live.com)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통해 스카이 드라이브에 접속하면 된다.

KTF 광주본부 직원들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홀더 청소년 공부방을 찾아 '비기 IT 공부방'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KTF 광주본부 제공〉

사람 중심 정보화 세상 만든다

KTF, 청소년 자활기관 등 매월 1곳씩 선정 IT공부방 지원

KTF 광주본부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KTF 광주본부는 지난 22일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홀더 청소년공부방을 찾아 컴퓨터 등 IT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비기(Bigi) IT 공부방'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비기 IT 공부방'은 정보통신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청소년 공부방과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자활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월 1곳씩을 선정, PC와 사무용 기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KTF 광주본부는 이날 시설팀 직원 8명이 참여해 최신형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프린터와 스캐너 기능을 갖춘 복합기 등 1천만원 상당의 IT기자재를 홀더 청소년공부방에 설치했다. 또 도배와 전등·장판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하고 수화 정보검색 대회도 열었다.

이날 찾아간 홀더 청소년공부방은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줄임말로 청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다. 이 곳에서는 청소년문고, 수화교실 운영 등 청각장애인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KTF는 지금까지 여수 갈릴리공부방, 완도 노화도 공부방, 해남 땅끝공부방, 순천 청소년자활관 등 광주·전남 5곳을 비롯해 전국 55곳의 소외된 공부방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KTF 광주본부는 오는 3월 장흥 대덕 공부방과 5월 광주 1318희망지기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비기 IT 공부방'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KTF 광주본부 채영선 대리는 "IT환경이 열악한 공부방 아이들에게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IT환경을 조성, 즐거운 공부방이 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람중심의 따뜻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신 두절 아리랑 1호 임무 끝

지구 4만 3천바퀴 회전 위성 영상 44만장 촬영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상 관제국과 통신이 두절된 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의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지상과 통신이 두절돼 임무수행이 정지된 아리랑 1호에 대해 20일자로 임무를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9년 12월 발사된 뒤 지구를 4만3천여 바퀴 회전하고 해상도 6.6m 위성카메라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위성영상 44만여장을 촬영한 아리랑 1호는 남은 연료가 다 소진되면 대기권에 진입해 불타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웹 접근성 'A학점'

장애인 이용 가장 편리 … 광주 서구·광양·영암 'D학점'

지자체 웹 사이트 접근성 조사

전남도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꾸며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서구와 곡성, 광양, 영암, 장흥군의 홈페이지는 장애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26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2007년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입법사법기관 77곳의 평균 점수는 87.8점으로 전년보다 6점이 올랐다.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기초지자체 230곳의 평균 점수는 77.6점에 불과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점 이하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70점 이하의 경우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 전남도는 유일하게 90점 이상인 A학점을 받았다. 광주시와 광주 동구, 나주, 목포, 여수, 진도, 화순군 등은 B학점(80~90점)을, 광주 광산구와 강진, 고흥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C학점(70~80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자체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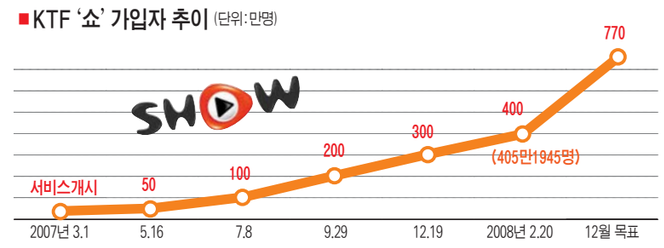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90점 이상	전라남도	
90점~80점	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진도군, 화순군
80점~70점		광주시 광산구, 광주시 남구, 광주시 북구,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70점 이하		광주시 서구, 곡성군, 광양시, 영암군, 장흥군

▲웹 접근성=시각장애인이 소리로 웹 사이트를 읽을 수 있는 등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 이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대로 구축해 놓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90점이상(A), 80-90점(B), 70-80점(C), 70점이하(D)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반해 광주 서구와 곡성, 광양, 영암, 장흥군 등은 낙제점인 D학점을 받아 웹사이트의 개선,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F '쇼' 가입자 추이 (단위:만명)



3세대 이동통신 '쇼' 가입자 400만명 돌파

광주 12만6천명·전남 7만5천명

KTF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쇼(SHOW)'의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쇼는 4개월 뒤인 7월 100만명을, 12월에는 3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20일 406만명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광주지역 가입자는 12만6천명, 전남은 7만5천명이다.

KTF 분석에 따르면 하루 휴대폰 가입자의 66%가 3G를 선택하고 있다. KTF만을 놓고 보면 84%의 고객이 3G 서비스에 가입하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 52.5%, 여성 47.5%이며 1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7%, 30대가 20.7%로 그 뒤를 이었다. KTF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쇼 가입자 목표치인 770만명 확보는 물론 전체 3G 가입자도 1천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총 22종의 3G 단말기를 선보인 KTF는 올해 40여종의 쇼 전용 단말기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